

가계는 '봉'

가산금리 사상 최고 은행들 먹여 살렸다



광주은행 창립 41년 역사 사진으로 한눈에

올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와 저축성예금 금리의 차이가 8년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또 가계대출 금리는 6년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았으며 가계대출금리의 가산금리(CD금리대비)는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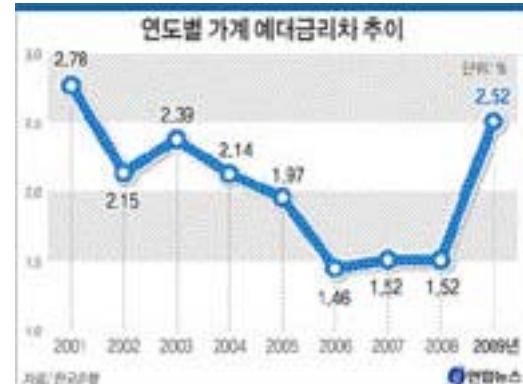
이는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은행과 기업의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확대하는데 이용됐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기준)는 평균 연 5.65%로 예금은행 순수저축성예금금리의 3.12%보다 2.52%포인트 높았다.

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2001년(2.78%) 이후 8년만에 최대다. 이 금리차는 작년도 같은 기간의 1.52%보다 1.0%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다. 예대금리차가 1년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커진 것은 환란 당시인 1999년(3.12%포인트) 이후 없었다.

가계부문 예대금리차는 1~9월 기준으로

▲2004년 2.14%포인트
▲2005년 1.97%포인트
▲2006년 1.46%포인트 ▲2007년 1.52%포인트 등으로 2005년 이후에 1%대에 미달다가 올해 2%대로 경쟁 뛰어 올랐다.



초·중·고생도 인터넷으로 공공 아이핀 발급

주민등록증이 없는 초·중·고교생도 인터넷으로 공공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아이핀 발급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앞으로 초·중·고교생은 인터넷으로 아이핀을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 정보 등만 입력하면 된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함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로, 지난 8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또 만화형식으로 동영상(플래시) CD를 제작, 배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초·중·고교생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의 파이어폭스와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아이핀 발급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금리와 CD금리의 차이인 대출 가산금리는 올해 1~9월 평균 3.07%로 1999년(4.37%) 이후 10년만에 가장 커졌다. 올해 가산금리는 작년의 1.59%보다는 1.48%포인트나 높다.

은행 대출금리가 올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중소기업 대출금리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났다.

은행 대출금리차는 올해 같은 기간에 0.07% 포인트로 6년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가계·중소기업 대출금리차는 2004년 -0.07%포인트, 2005년 -0.29%포인트, 2006년 -0.39%포인트, 2007년 -0.24%포인트, 2008년 -0.18%포인트 등으로 2004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중소기업대출금리를 누르면서도 이익회복을 위해 가계대출금리를 올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은행과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가계가 희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금리와 CD금리의 차이인 대출 가산금리는 올해 1~9월 평균 3.07%로 1999년(4.37%) 이후 10년만에 가장 커졌다. 올해 가산금리는 작년의 1.59%보다는 1.48%포인트나 높다.

은행 대출금리가 올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중소기업 대출금리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났다.

은행 대출금리차는 올해 같은 기간에 0.07% 포인트로 6년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가계·중소기업 대출금리차는 2004년 -0.07%포인트, 2005년 -0.29%포인트, 2006년 -0.39%포인트, 2007년 -0.24%포인트, 2008년 -0.18%포인트 등으로 2004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중소기업대출금리를 누르면서도 이익회복을 위해 가계대출금리를 올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은행과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가계가 희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금리와 CD금리의 차이인 대출 가산금리는 올해 1~9월 평균 3.07%로 1999년(4.37%) 이후 10년만에 가장 커졌다. 올해 가산금리는 작년의 1.59%보다는 1.48%포인트나 높다.

은행 대출금리가 올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중소기업 대출금리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났다.

은행 대출금리차는 올해 같은 기간에 0.07% 포인트로 6년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가계·중소기업 대출금리차는 2004년 -0.07%포인트, 2005년 -0.29%포인트, 2006년 -0.39%포인트, 2007년 -0.24%포인트, 2008년 -0.18%포인트 등으로 2004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중소기업대출금리를 누르면서도 이익회복을 위해 가계대출금리를 올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은행과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가계가 희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거래량 등 기초체력 회복 관건

낙폭 과대주 분할 매수로 대응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 특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의 호전세가 해외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 아직까지 회복의 속도가 미약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완만하게나마 소비와 주택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지난주에 주목되었던 정책변수의 돌출 여부는 역시 중국과의 위안화 절상 논의가 무위에 그치면서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금주는 월말을 맞아 해외에서 핵심적인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영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호조세 속에서도 차별적인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는 모처럼 차별화된 영향을 끼쳤던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3.1% 상승하며 1,600선을 회복해 6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외국인의 교체매매로 주중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연중 최저수준의 거래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시장내 전반적인 관망 분위기 자체가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매수주체와 더불어 시장에서 실종된 주도주와 모멘텀 역

시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어 오랜만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반등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선물시장에서의 변동성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동향이 현물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증시는 금주에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등락이 엇갈리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결국 당분간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와 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기술적 수준에 그치는 등락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하겠다. 다만 지수의 변동성 범위가 다소 넓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도주와 모멘텀, 매수주체의 부재라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한 대응은 짧은 기술적 접근에 무게중심을 유지해야겠다.

외국인 매수 등 수급구도의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활용해 분할 매수하는 보수적인 대응을 권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제작: 광주광역시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840 2관점 (061) 752-9940
충장점 (062) 227-9970 3관점 (061) 262-9200
한신점 (063) 651-2422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장소에 최고의 선택

전기모일러

광주대리점 062-233-1366
삼우상사 062-233-1366

남성 헤어 가능장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SBS-KBC ‘사랑하는 사람’

가발 초슬립!!

50만원~

최대인 헤어한 인적률 20여주는
모델한 명반자기 노출합니다.